

문제 1

1. “ (나)에서 동료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카루스는 죽은 마체사를 공격하고, 사체 위로 뛰어 내리는 등 자극을 통해 죽은 마체사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카루스 외에 다른 고릴라들도 마찬가지로 마체사가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오래 일상적인 행위를 반복한다.” 이 근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릴라들이 죽은 마체사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 내려고 한 것은 죽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갈수도 있지만 반대로 죽음을 인지했기 때문에 반응을 이끌어 내려고 특이 행동을 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맞지만, 근거 부족입니다. 여기에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죽음을 인지하는 것은 인간만의 고유 능력이기에 가능하다는 주장이 보충되어야 합니다.

2. 나머지는 비교가 아주 좋습니다, 형식도 좋고 내용 근거서술도 충분합니다.

1번 지적이 너무 아쉽네요. 제가 쓴 링크를 첨삭 글에 첨부합니다, 이를 꼭 읽어보세요.

제시문을 통한 제시문 읽기입니다.

문제 2

1. “ 제시문 (라)의 실험 1과 실험 2에서 모두 집단 간의 경우보다 집단 안의 경우에 더 높은 죽음과 관련된 단어의 완성도를 보였다. ” 구체적으로 수치를 근거로 들면서 서술하면 더 철저한 근거 보충이 될 것입니다.

2. “이에 반해 (가)에서는 죽음을 끝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설물과 죽음 간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없으므로 연관성 또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집단 간의 경우에 집단 안보다 더 낮은 완성도를 보였고, 오히려 친구와 같은 일상적인 단어가 죽음을 더 잘 연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배설물을 생감함 -> 죽음을 연상 -> 죽음을 기피함. 이 논리로 위의 대응은 맞지만

배설물을 생각하지 않음 -> 죽음을 연상 X?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친구, 즉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일반적 단어,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아닌 복도와 같이 삶의 중간을 상징하는 이런 단어를 통해 “삶”을 연상시켰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연상률이 낮다고 대응해야 합니다.

3. 논평은 무난한 논평입니다. 문제를 잡을 수는 없지만, 더 좋은 답안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보입니다. 논평은 단순하게 서술해서 기본점수를 챙기느냐 VS 논리가 좋은 어려운 논평을 서술해서 높은 점수를 챙기느냐 싸움입니다. HIGH RISK HIGH RETURN! 좀 더 논리가 어려운 논평을 구상해보시길 바랍니다 :)